



쟁점
토론

대학교수의 사회참여, 허와 실

그 사람 대학교수 맞아?

김 학 수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장

대학은 연구, 교육, 봉사라는 교수의 기본 책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책무를 명확하게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명확한 잣대의 미비로 아직 그러한 학교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봉사중심대학의 경우 사회 참여 문제가 불거지는 교외 봉사활동에 전적으로 치중하는 교수는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으며 책무 또한 감소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이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해당 교수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참여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대학교수에게 있다기보다는 소속 대학의 조직에 있는 것이며, 각 대학의 목표와 소속 교수의 역할을 명확히 우선순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 대학교수에 대한 기대

한국은 대학교수의 천국이라 할 만 하다. 교육 중시를 넘어 대학 입시에 목숨을 건 사회풍토에서 대학교수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에 임용되면서 대학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등의 직급은 무용지물이고 모두가 (정)교수의 명함을 찍고 다니며, 그렇게 행세하고 대접 받으며 살아간다. 지금 대학에도 경쟁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회조직들, 예컨대 공무원 조직이나 군대 조직 등에 비해서도 훨씬 더 폐쇄적 철밥통인 것이 현실이다. 그런 보호막을 만끽하고 있는 필자가 이런 글을 쓸 자

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대학교수에 대한 사회적 존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사건에도 대학교수가 끼어들면 큰 뉴스가 되는 법이다. 예컨대 어떤 도박판이나 투기 집단에 교수가 끼여 있으면 당장 “그 사람 대학교수 맞아?” 하는 반응과 함께 큰 뉴스로 돌변한다. 물론 이런 사연에 걸려든 교수는 스스로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대학교수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각 때마다 가장 빈번하게 장관 물망에 오르는 직업이 대학교수직이고, 온갖 부패하고 불명예스러운 짓을 한 뒤에도 일단

대학교수직을 얻으면 모든 것을 면제받는 인상을 준다. “그 사람 대학교수 됐어!” 하는 소리에 쉽게 존망의 대상으로 전환된다고나 할까?

이런 사회적 존망은 필연적으로 대학교수들을 과대포장 내지 과대평가되게 만들고, 나아가 그들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쉽게 망각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대학교수의 사회참여가 문제되는 것도 그런 역할 망각의 문제이지, 사회참여 자체가 곧 바로 선과 악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대학교수의 사회참여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으로 대학교수에게 부여된 역할들과 그들의 우선순위를 고찰하면 선명하게 분석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II. 대학교수의 걸음걸이 실상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동체가 대학교수에게 부여하고 있는 세 가지의 책무는 연구, 교육, 그리고 봉사이다. 연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도록 부여하는 책무이고, 교육은 기존의 지식을 전수하여 다음 세대가 문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책무이고, 봉사는 전문지식을 널리 사회에 활용하게끔 하는 책무이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책무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대학교수의 걸음걸이 실상 여섯 개 모두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구중심의 대학교수다. 사실, 대학이라는 곳은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갖고 있다. 흔히,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곳은 그런 대학의 목표를 우선순위에 놓는 대학을 말하고, 그런 만큼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들 또한 연구업적을 가장 중시한다. 흔히, 세칭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곳들은 세계 어디에서든 그런 연구

중심 대학교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교수들은 오직 연구에 매진하고, 연구 외의 걸음걸이를 걷는 대학교수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연구를 가장 중시하면서도 뒤이어 교육을 그 다음 우선순위로 강조하느냐, 또는 봉사를 우선순위로 강조하느냐에 따라 연구중심 교수의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연구, 교육, 봉사의 순서나 아니면 연구, 봉사, 교육의 순서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연구를 가장 중시하되, 학부 내지 대학원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후진을 양성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연구중심대학에 종사하는 교수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연구 다음에 봉사, 교육의 순서로 걸어가는 교수들도 있다. 예컨대, 대덕단지의 ‘과학기술 연합대학원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연구업무가 주된 관심사이고, 그 다음으로 연구결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응용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 봉사에 치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대학원 소속의 후진을 가르치지만, 이것은 매우 제한된 교육활동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전통적인 대학교수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이런저런 타이틀을 갖고 대학에 출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교육중심의 대학교수다. 이는 말할 나위도 없이 기존에 생산된 지식을 전파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 대학교수의 걸음걸이다. 가장 많은 대학교수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려운 활동이다. 예를 들면,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과내용에 대해 매우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 대상인 학생들에 대해 매우 높은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을 또한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교육중심 대학교수도 그렇게 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교육중심의 대학교수도 교육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연구를 또한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다음으로 연구를 중시하느냐 또는 봉사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세칭 일류대학에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교수들은 교육중심대학으로 자리를 옮겨서 교육, 연구, 봉사의 우선 순위로 걸음걸이를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일류대학들에서도 교수들이 일단 정년을 보장받고 나면, 또는 생산적인 연령대를 지나면 주로 교육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학부교육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매우 우수한 소규모 대학들이 많다. 오리건 주(州)의 포틀랜드 시(市)에 있는 리드 대학(Reed College) 같은 곳이 대표적 사례다. 이 대학의 경우, 교수들에게 질 높은 학생 교육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학생들을 향한 학내 봉사활동을 중시하지만, 교수들로 하여금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는 것까지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대학평가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런 교육, 봉사, 연구의 순서대로 평가 잣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드대학은 어떤 대학평가 활동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리드대학이 배출하는 우수한 학부인력이 다른 연구중심의 대학원에 들어가 탁월한 연구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너무나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예비 연구인

력 양성에 초점을 둔 대학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수한 실무인력 배출에 초점을 둔 '한국 산업기술대학' 같은 곳은 바로 교육, 봉사, 연구의 순서로 교수의 걸음걸이를 강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세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봉사중심의 대학교수다. 여기서 봉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교내 봉사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교외 봉사활동이다. 전자는 학내 행정직 내지 연구소 등의 보직을 맡는 다든가 학생들의 동아리 지도교수직처럼 학생 활동 관련 직책을 맡는 경우이고, 후자는 해당 전문 분야 관련 교외의 사회적 직책들을 맡는 경우이다. 대학교수의 사회참여가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후자인 교외 봉사활동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외 봉사활동이 아무리 해당 전문 분야에 연관되는 것일지라도 대학의 연구 및 교육활동의 양보다 과도한 경우라든가 또는 해당 전문 분야와 전혀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교내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고, 연구나 교육이 차선으로 취급되어도 정당화되는 경우들이 많다. 예컨대, 총장, 학장 및 처장과 같은 교내 행정직들은 그것 자체만으로 전문직에 해당되고, 엄청난 행정적 책무를 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연구와 교육은 거의 도외시될 수밖에 없지만, 대학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들이 연구 내지 교육의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봉사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런 교내 봉사중심의 대학교수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교외 봉사활동을 가장 우선시 하는 봉사중심의 대학교수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해주시 않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대학은 기본적으로 연구 내지 교육을 교외 봉사활동보

다 최우선시 하기 때문이다. 만약 교외 봉사활동에 전적으로 치중할 경우가 생기면, 교수가 대학을 일시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떠나는 계정도(正道)라고 하겠다. 예컨대, 대학교수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으로 진출할 경우, 그것은 교외 봉사활동에 치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 내지 퇴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아울러, 그 사람은 이미 대학교수가 아닌 것이다.

문제는 이런 뚜렷한 교외 봉사활동이 아니면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교수의 본령을 점령해버리는 여타 교외 봉사활동들이 많고, 그들에 전념하고 있는 현직 교수들 또한 많다는 점이다. “그 사람 대학교수 맞아?” 식의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때 ‘정치교수’라고 불리우던 사람들도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들은 연구업적 쌓기를 멀리한 지는 이미 오래이고, 교외 봉사활동으로 교육활동 자체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결강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곧 해당 대학의 부실을 가져오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피폐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Ⅲ. 어떤 걸음걸이가 문제인가

지금까지 대학교수의 여섯 가지 걸음걸이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대학교수의 어떤 걸음걸이가 문제인가에 대한 해답이 명백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대학교수의 걸음걸이는 교수가 소속한 대학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이 연구, 교육, 봉사의 세 가지 책무를 어떤 순서로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해당 대학 교수들의 걸음걸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스스로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아니면 심지어 봉사중심대학을 그 대학의 제1의 목표로 삼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교육인적자원부 내지 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평가가 대부분 연구중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연구보다 교육 내지 봉사중심의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런 상충이 대학교수의 사회참여를 사회적으로 무조건 배척하게 만든다는지도 모른다.

연구중심대학이라면 연구업적을 가장 중시하고, 교육 내지 봉사에 대한 책무를 명확하게 감소시키는 학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 대학에서 어떤 교수가 봉사에 치중한다면 대학의 사회참여가 크게 문제시 되는 바로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교육중심대학이라면 마찬가지로 연구와 봉사에 대한 책무를 명확하게 삭감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학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해당 대학교수의 사회참여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 불행히도 우리의 경우, 그런 명확한 잣대의 미비로 대학교수가 개별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봉사중심 교수 중에서 교외 봉사활동에 전적으로 치중하는 교수는 대학교수직을 버리고 활동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대학교수의 사회참여가 크게 비판받는 이유도 주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엄밀하게 말해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봉사활동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컨대, 학과장을 하든

전공 주임교수를 하든 어느 정도의 봉사활동을 피할 길은 없다. 그러나 교내도 아니고 교외의 봉사활동이 과도하여 연구와 교육을 압도해버리고 심지어 저버린다면 그것은 크게 비난받아도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대학 당국이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교수로 하여금 대학의 목표를 따르도록 하든지 아니면 떠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학교수의 사회참여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대학교수에게 먼저 있다기보다 오히려 소속 대학의 조직에게 있다고 보인다. “그 사람 대학교수 맞아?”와 같은 질책성 질문의 정당성을 정확하게 평가 내리기 위해서는 각 대학 조직의 목표와 소속 교수의 역

할들을 명확히 우선순위화 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김학수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 과(현 언론정보학과)에서 석사학위 및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학장 겸 언론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언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과학기술훈장 옹비장을 수훈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의회정치와 언론 역할 연구』, 『한국 언론의 이해』, 『과학 커뮤니케이션론』, 『한국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등이 있다.

